

삼성데이터시스템

- 삼희투자금융 '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남궁석, 360-5363)은 최근 삼희투자금융에 이 회사가 개발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개월동안 10억원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은 외부의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쉬운 분산처리형으로 구축돼 있다.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서비스 이용자 크게 늘어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자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정원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각종 정보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및 단체는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5백7개이며, 이용건수도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총 1만6백59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정원의 온라인 정보시스템인 KINITI-IR 이용회원 및 단체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2천6백55개로 금년말에는 총 3천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 정보서비스 제공실적은 자료 번역서비스가 전년동기대비 83.6%, 조사서비스가 31.6%, 원문제공서비스가 7.7%, 교육연수가 6.3% 각각 늘어났다. 또한 집단별 정보이용은 전체회원의 55.1%가 넘는 기업회원(5천5백80개소)이 전체 정보 이용량의 65.9%를 차지했고, 연구기관에서 15.5%, 대학 7.8%, 기타업종이 10.8%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정보이용 구성비율은 서울 29.2%, 경기 19.9%, 인천 8.6%로 수도권이 57.7%를,

대전이 14.9%, 부산 6.0%, 대구 경북 5.7%, 경남 5.5%, 전북 3.6%, 충북 2.9%, 광주 전남이 2.8%, 강원이 0.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기정원의 한 관계자는 “각지역 산업발전 수준에 따라 정보이용 지역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정보이용은 전체 이용비율의 24.1%로 전년동기 20.2%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정보활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정원은 30대 고액(8백만원이상) 정보이용회원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15개처, 연구소 12개처, 중소기업 2개처, 기타 1개처”로 나타났으며, “이들중 중소기업이 2개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정보마인드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사동정>

- *데이터베이스사업부장겸 선임연구위원 서홍석
- *연구위원 윤대영
- *전문위원 오성근,배영문
- *경영기획팀장 직무대리 김창목

LG정보통신

- 한글과 컴퓨터사에 IC카드공급 계약

LG정보통신은 한글과 컴퓨터사에 IC카드 시스템을 공급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IC카드의 기존과 달리 마그네틱 카드보다 대용량의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암호처리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정보통신은 우선 IC카드 5만장과 전자대금결제 가능한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1백1대를 공급하고 영업망과 AS망을 확충하는 등 IC카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우콤

- 호남 PC통신 주식회사 설립

나우콤(대표 강창훈)은 광주이동통신과 공동으로 호남PC통신(주)를 설립, 오는 11월부터 전남,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PC통신시범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될 호남PC통신은 광주이동통신을 대주주로 금융계, 방송계, 교육계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내년에는 1백% 증자로 자본금을 확대해 PC통신, 자동응답서비스(ARS), 팩스서비스등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광통신 모듈개발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가정에까지 광신호를 전달, 광CATV·화상전화 등의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광통신모듈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 양승택)는 화합물반도체연구팀이 G7프로젝트인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개발사업의 하나로 1백55메가bps(초당 1억5천5백만비트전송속도)급 광통신모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광신호 송신용으로 개발된 이 모듈은 전송신호를 반도체레이저를 통해 광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소자로, 선폭 0.8미크론(1미크론은 1천분의1mm)급의 ASIC(주문형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혼성집적회로(하이브리드 IC)의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이 모듈은 전자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광전 변환효율이 1m암페어당 0.32m와트로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특히 이 모듈은 미국의 A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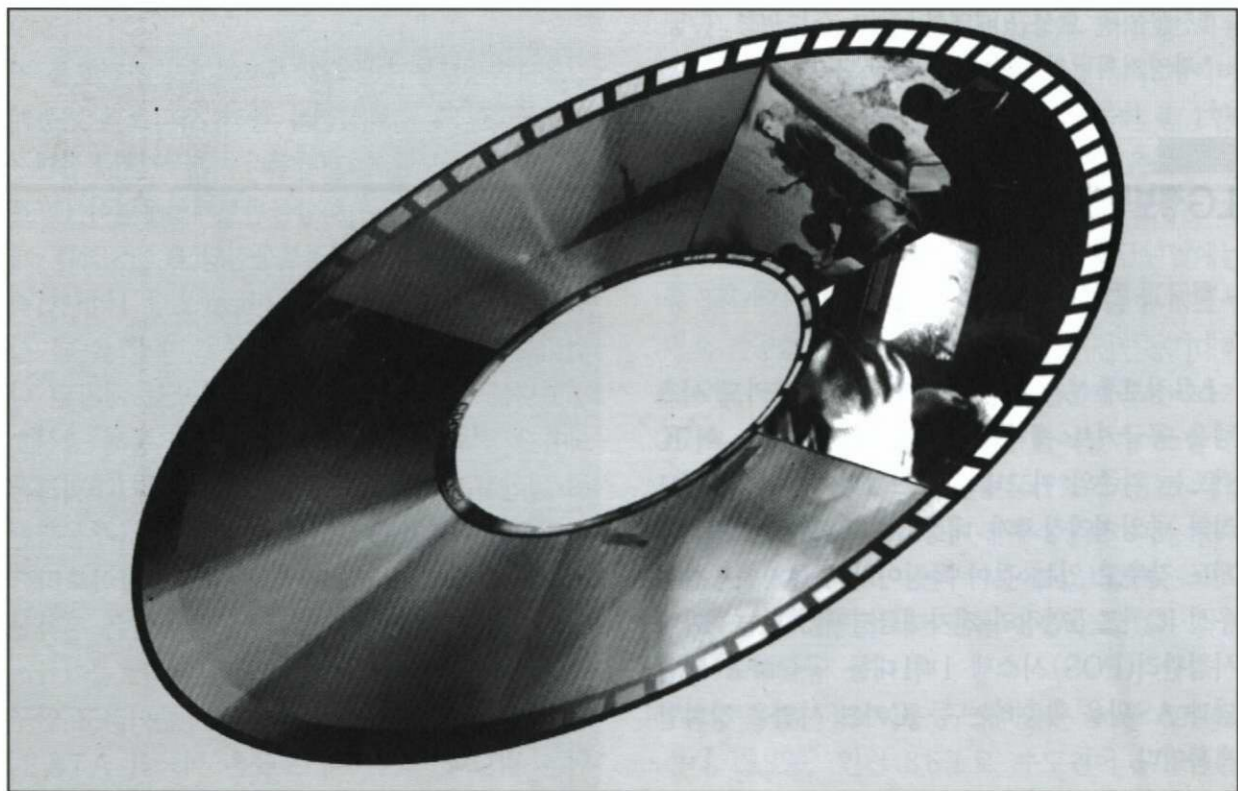
일본 후지쓰사 등의 기존제품에 비해 조립공정이 간단하고 소요부품수가 적어 국내 광전송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콤

데이콤네트(DNS), 개통 11주년

국내 최초의 데이터전용 통신망인 데이콤의 '데이콤네트(DNS)'가 개통 11주년을 맞는다. DNS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 개발, 보급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콤이 국제표준의 패킷교환방식을 채택, 지난 '84년 7월 25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공중정보통신망. DNS는 그동안 천리안과 같은 PC통신, 정보검색, EDI(전자문서교환), 다중매체통신 등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기반이 돼 '우리나라 정보화의

뿌리'로도 평가되고 있다. DNS는 개통초기 서울 부산 대전의 3개 지역에만 설치했던 교환기의 접속점이 지난해말에는 전국 77개 도시로 확장됐다. 접속포트도 2만1천2백72개로 늘어 국내 전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54개국, 1백51개 통신망과 서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용자수는 서비스 초기 1백57가입자가 지난해말 1만1천2백 가입자로 연평균 46.3%씩 늘었으며 천리안 등의 이용자까지 합치면 58만3백여명에 달한다. 또 지난 93년 10월에는 한국통신의 데이터통신망 '하이네트-P'와 상호연동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LG-EDS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에이텔, 유공 등 민간기업의 4대 사설망과도 연동하여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엮는 명실상부한 국내최대의 공중정보통신망으로 자리를 굳혔다. 데이콤은 DNS 개통 11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적 확장보다는 고속화, 서비스 다양화 등 통신망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과도 연계해 국



가기간망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에 고속패킷교환기를 설치하고 전국 35개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전송로를 현재의 T1(초당1백54만비트 전송속도)급에서 4천5백만 비트급으로 대폭 고속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NS를 통해 화상회의시스템, G-4팩스, 원격진료 등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ATM(비동기전송방식)교환기술을 적용하고 율하반기에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프레임 릴레이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DNS고속광대역화 국가기간망으로 육성

데이콤은 데이터전용통신망인 DNS(데이콤네트)개통 11주년을 맞아 고속화와 서비스의 다양화 등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광대역 정보통신(B-ISDN)과 연계해 국가기간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데이콤은 이를위해 서울과 5개 광역시에 고속패킷 교환기를 설치하고 전국 35개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전송로의 속도를 현재의 T1급(1.544Mbps)에서 45Mbps급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천리안 유료가입자 30만명 돌파

데이콤이 제공하는 천리안 매직콜 유료가입자가 국내 PC통신서비스로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데이콤은 천리안 가입자수가 서비스 첫해인 '85년 1백명에서 90년 1만 1천여명, '92년 6만2천여명, '94년 21만5천여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들어서도 크게 증가해 지난 28일 30만3백 9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그동안 문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천리안을 지난 1일부터 멀티미디어정보가 추가된 천리안 매직콜로 개편한 데다 28.8KBPS(초당 2만8천8백비트)급 고속회

선을 50회선에서 7백70회선으로 늘려 접속률을 개선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천리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보군별로는 공개자료실, 대화.토론, 동호회, 게임.오락 순이며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별로는 천리안 인터넷, 다자간 온라인게임인 단군의 땅, 주라기공원, 증권시세정보, 신세대자료방 순이다. 데이콤은 오는 8월말까지 고속회선을 3천회선으로 늘리는 한편 천리안 매직콜전용소프트웨어인 매직콜 윈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문형비디오, 멀티미디어 채팅(대화), 동화상 온라인게임 같은 멀티미디어정보를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자잡지 서비스 본격 개시

데이콤(대표 손익수)은 잡지내용을 온라인 상태로 볼 수 있는 전자잡지서비스(서비스명:어개인)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의 "천리안 매직콜 윈"을 통해 제공되는 어개인은 온라인 잡지의 신속한 검색기능과 CD롬 잡지의 다양한 내용을 결합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잡지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아 보는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형태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윈도즈환경에서 작동하는 천리안 매직콜 전용 인포메이션 매니저인 "매직콜 윈"의 첨단기능을 이용해 문자 정보, 그래픽, 음성, 동화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전자잡지는 지난 93년 미국에서 "옵니"라는 과학잡지가 아메리카 온라인(AOL)을 통해 기사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PC-VAN과 니프티서버를 통해 "온라인 저널"이 각각 서비스되고 있다.

공중정보통신망 직접 접속 LAN-WAN접속서비스 추진

근거리통신망(LAN) 환경에서 공중정보통신

망(WAN)을 직접 접속해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LAN-WAN접속서비스가 선보인다. 데이콤(대표 손익수)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LAN 및 TCP/IP통신을 사용하는 기업의 네트워크를 현재 구축중인 천리안 고속망에 직접 접속시켜 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 상호간 정보통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LAN-WAN접속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4개 도시에 설치예정인 고속 라우터 장비에 속도별로 카드를 추가 실장하는 등의 시설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데이콤은 LAN사용 기업들간의 상호 연동을 위해 라우터 임대 및 상호접속 자문을 포함한 토크 베이스의 LAN-WAN접속서비스 제공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데이콤은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라우터 대 라우터간의 단순 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LAN 상호접속뿐만 아니라 그룹웨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동서비스(NCS) 개념을 도입해 디렉토리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등의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통신망과의 연동이가능한 개방형 통신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LAN-WAN 접속서비스중 인터넷과의 연동은 어드레스 및 보안문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기능이 실장된 게이트웨이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변신후 새출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33년만에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알선이나 외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유치 기능을 보강해 새로 출범했다. 이와 관련, 무공은 8월 4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박용도 무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판식을 가졌다. 앞으로 무공은 기왕에 해왔던 수출 등 교역증진을 위한 정보수집이나 알선업무 외에 투자 및 산업협력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 무공이 이처럼 기능을 바꾼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나 외국첨단기업의 국내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기구가 절실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무공은 하반기중 투자업무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여기에 투자정보센터를 두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전 세계 1백개국을 대상으로 투자관련법률과 제도 등 투자환경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64개국 82개에 달하는 방대한 해외무역을 관을 활용, 선진국 중심의 거점무역관에는 반드시 대 한국 투자안내센터를 설치해 외국 기업들의 상담창구로 활용케 할 예정이다. **OC**